

<http://dx.doi.org/10.17703/JCCT.2016.2.4.31>

JCCT 2016-11-3

마음의 메인보드를 작동시키는 전도체로서의 정격 시조에 관한 문학치료 연구

A Study of Literary Therapy on the Rated Sijo as a Conductor that Works the Motherboard of Mind

박인과*

Park In-kwa*

요 약 인체라는 하드웨어는 전기적 신호에 의한 세포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입력되는 생리적 소프트웨어인 문장에 의해서 생명력이 부여된다. 본 연구는 뉴런과 뉴런으로 전달되는 생리적·인지적 시스템의 오류로 신음하는 인체의 보다 나은 치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의 정신계에 喜怒哀樂의 정서를 전기적 신호 체계로 접속시킬 수 있는 전도체로서의 기능을 가진 인체의 소프트웨어인 정격 시조의 문장 프로그램을 통해 정격 시조의 문장뉴런이 인체의 뉴런 시스템에 시냅스 되어 마음의 메인보드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인문학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 원리가 규명되면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인체를 치료적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연구 결과 정격 시조에서 아주 빠르게 마음의 메인보드를 작동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었다. 한 수의 정격 시조를 접하고 혹은 한 음보의 정격 시조를 접하고 곧바로 원작인 정격 시조의 신호 체계를 이어받은 또 다른 문장으로의 새로운 부호화 및 재부호화가 치료적으로 재빠르게 형성됨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류에게는 미래에 부작용 없이 인체에 시냅스 되는 전도체로서의 문장과 인체에 장치된 마음의 메인보드 간의 상호작용의 기능을 통해 인간의 정신계를 풍요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문학치료의 가능성이 도출되었다.

주요어 : 전도체로서의 정격 시조, 생리적 소프트웨어, 마음의 메인보드, 부호화, 재부호화, 문장뉴런, 문학치료

Abstract The hardware of the human body is given the life force by the sentence which is the physiological software that the program for cell activation by the electrical signal ent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better therapeutic environment for the human body that groaned with errors in the physiological and cognitive systems that are transmitted to neurons and neurons. The sentence program of the rated sijo, which is the software of the human body which has the function as a conductor to connect the emotions of joy, anger, sadness, and enthusiasm to the human mental system, can be connected to the neuron system of the human body, we tried to identify the principle of operating the motherboard of mind in humanities. Once these principles are identified, we can figure out how to minimize side effects and lead the body to a therapeutic program. The research found that there is a strong energy source that can operate the motherboard of the heart very quickly in the rated Sijo. This is because it is confirmed that new coding and re-coding of a number of rated sijo, or a new syllable of one syllable followed by the original syllable of the original syllable, are formed quickly and therapeutically. This has led to the possibility of literary therapy for mankind to upgrade the human psychic system in abundance through the func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entence as a conductor that is synaptically connected to the human body and the mainboard of the mind attached to the human body without side effects in the future.

Key Words : Rated sijo as conductor, Physiological software, Mind board, Coding, Recoding, Sentence neuron, Literature therapy

*정회원, 문학일보

접수일자: 2016년 9월 1일, 수정완료일자: 2016년 9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9월 25일

Received: 1 September, 2016 / Revised: 15 September, 2016

Accepted: 25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born59@hanmail.net
Munhakilbo

I. 서 론

인류가 문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정신계가 문학적 정서와 문학적 틀으로써 인류의 존재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류의 정신계를 지배할 수 있는 문학적 행간에 인류가 매달리어 온 것은 인류가 문학적 에너지에 의해 구속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의 정서는 본래 구속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정신적 에너지이면서 독립적 자생력을 거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학적 추구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지를 탐색하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정신계를 지배할 수 있고 또한 지배하고 있는 문학적 틀의 신호들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류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예견하여 그 신호의 틀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전에는 시도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간편하면서도 마음의 틀을 잘 조맹해줄 수 있는 정격의 시조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모든 문학 장르에도 확장되어 연관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본 연구자는 최초로 “한국의정형시문학상”을 수상한 문인들 중에서 막강한 창작력을 보이며 1만여 수 이상의 시조들을 정신계의 심연에서 거대하게 퍼 올리고 있는 이영대의 시조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그의 마음에서 발출된 무수한 시조들의 전이적 현상들의 공통분모를 탐색하여 그 중 한 수를 선별해 마음을 작동시키는 문학적 정서와 틀의 전기적 신호들의 경로를 도식화 하며 추적하는 인문학적 가설의 방법을 택하였다. 이 연구에 정격의 시조를 택한 것은 정격의 시조가 인체와의 접근성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연구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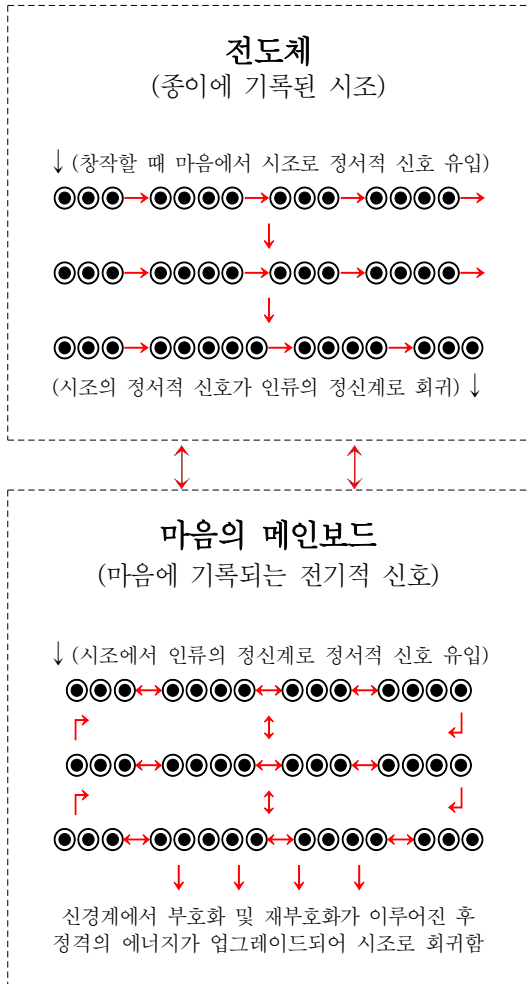
문장뉴런(표 5), 특히 시조의 텍스트로써 인체의 시스템을 감지한다거나 인체의 시스템에서 발출된 시조의 텍스트에서 인체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의학적으로 데이터화 된 표로 일목요

연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인문학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실생활과 관련된 예술 및 다른 학문에 선두적 역할로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인문학적 방법론의 시도와 노력은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 것으로써 인문학이 다른 학문과 교통할 수 있는 키워드 혹은 소스들을 발견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 1>은 인체의 뉴런(그림 1)이 작동하는 생물학적 관계가 전류와 같은 전기적 신호로써 이루어져 있다는 전체 아래 탐색된 연구의 표출물으로써 정격 시조의 텍스트와 인체의 뉴런 시스템에서 서로 “부호화” [4] [6] 되는 원리를 기술한 것이다. 두 개의 사각의 형태에서 “전도체”는 시조를 기록한 종이 위의 신호적 기호들, 그리고 “마음의 메인보드”는 인체의 마음 판에서 이루어지는 신호들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체공학적으로 도식화 된 것이다.

시조가 전도체라고 말하는 것은 인체의 시스템을 모체로 하여 발출된 시조 텍스트가 “살아있는 유기체” [1]로서 똑같은 혹은 다른 인체와의 시냅스를 위한 전 단계에 꼭 필요한 과정의 중간 단계에 속하면서 인체의 시스템에 전기적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종이에 기록된 시조는 인체에 시냅스하기 전에는 부도체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의 인체가 시조를 접하는 순간부터 반도체로 그리고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전도체로 진행된다. 그래서 시조가 무생물이면서 생물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체에 시냅스 될 때 인체에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인체의 뉴런 시스템 → 부도체(종이 위의 창작한 시조의 텍스트) → 반도체(시조의 텍스트가 인체와 시냅스 되는 순간) → 전도체(시조가 품고 있는 정서가 인체에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체를 모체로 하여 발출된 전도체로서의 정격 시조는 인체 밖에서 인체에 대한 생리적 소프트웨어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시조의 전도체와 마음의 메인보드
Table 1. Sijo Conductor and Mainboard of psychology



앞의 <표 1>에서 체계화 되는 “전도체”로서의 시조를 설명해 보겠다. 시조는 인체의 마음의 시스템에서 발출된 신호가 어느 날 불현 듯 텍스트로 기록되는 것이다. 이때는 인간의 마음을 텍스트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는 인간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조라는 텍스트에 담기는 전기적 신호는 12음보를 거닐게 된다. “→”는 1음보와 2음보를 지나 그리고 4음보를 지나 5음보에서 12음보까지를 거니는 텍스트 신호의 회로도이다. “↓”는 시조의 각장에서 다른 장으로 연결되는 4음보로 종합화 된 시조의 신호 체계의 “부호화” [4] [6]의 흐름을 말해준다.

그리고 “●”는 인체의 세포적 신호를 의미하며 시조의 음을 표시한다. “●”가 3개 있는 부분은 시조의 3음, 4개 있는 부분은 시조의 4음, 그리고 5개가 있는 곳은 시조의 5음이 인식되는 부분이다. “↑”, “↓”, “↔”, “↕” 등은 시조의 텍스트의 신호와 인체의 뉴런의 신호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또한 시조끼리 혹은 뉴런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부터 인체의 시스템과 시조의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가 되어 서로 작가의 마음의 행로를 캡처하여 그 결과 새로운 시조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인체의 세포가 정보처리와 관련한 “DNA를 복제” [5]하는 것과 같다.

또 <표 1>에서 “마음의 메인보드”는 인체 내에서 시조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먼저 시조 텍스트에서 인체로 진입하여 시냅스 하는 신호들은 인체에 조직되어 있는 시조의 틀에 겹쳐져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극히 밀접한 시냅스를 통해 상·하·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시조의 텍스트적 신호 체계와 인체의 뉴런의 텍스트적 신호 체계를 서로 오가며 새로운 신호를 합성해 낸다. 이때 인체의 수십억 년 동안 각인된 뉴런의 시스템들이 외부에서 터치된 신호들을 재부호화 시키고 시조의 신호들이 인체의 수십억 년 동안 각인된 뉴런의 시스템들을 재부호화 시키는 것이다. 시조의 음보는 음보끼리 행간은 행간끼리 그리고 시조의 틀과 인체의 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전도체로서의 시조 텍스트의 신호들이 일방적인 한 방향으로 주어졌다면 인체 안에서의 뉴런의 시스템의 신호들은 서로 상·하·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어 온몸 전체의 신경과 소통하게 되는 거대한 우주의 작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가 우주와 같다고 전제할 때 인체에서 발출된 신호의 기호를 체계화한 시조로서의 전도체는 우주를 작동하는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로 단 하나의 시조가 우주를 형성하거나 파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폭제를 탑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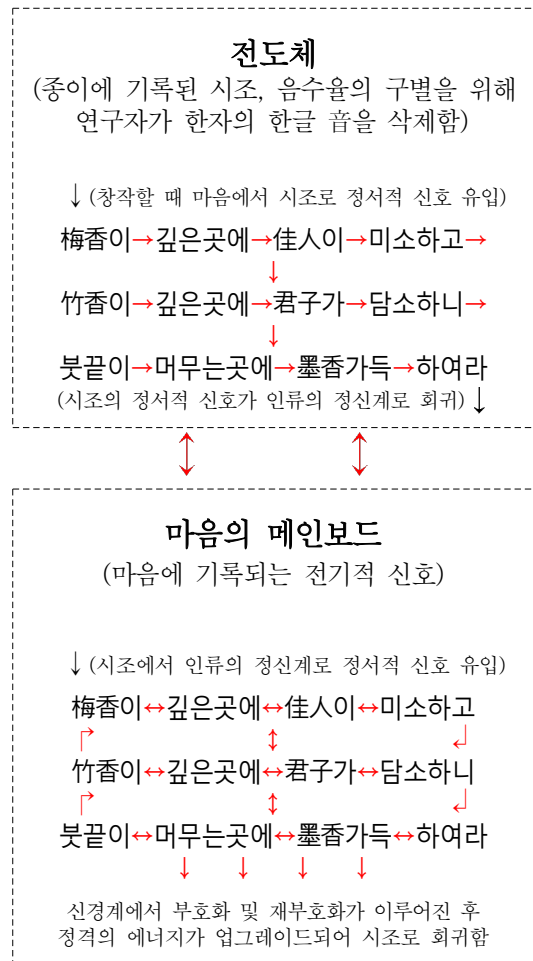
이제 이렇게 인간의 정신계에서 마음의 회로가 작동하는 상태를 시조의 텍스트에 대입해 보기로 한다. 이영대의 시조 <묵향墨香과 법향法香>의 첫수를 마

1) 이영대, 『다만 사랑할 때』 (서울: 내하출판사, 2014), 165.

음의 회로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된다. 시조의 신호와 마음의 신호가 맞게 될 때 마음의 메인보드가 작동되어 인류의 정신계에서는 신호의 전달과 합성의 결과물로 문학치료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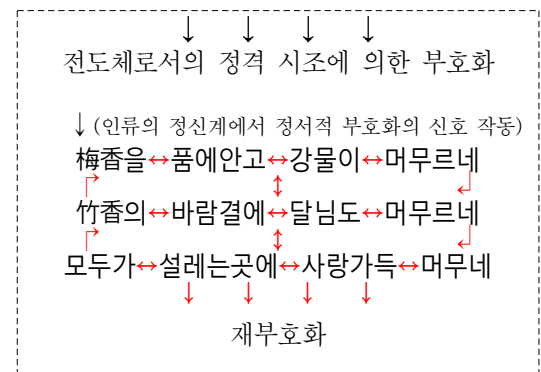
이때 중요한 것은 연어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전기적 신호가 발출된 마음의 메인보드와 같은 코드와 시냅스 될 때만 시조의 신호와 마음의 신호가 서로 호응하여 융합되고 문학치료의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류의 정서와 정신적 가치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인류의 정신계에 서로 공유되어 있으므로 해서 한 사람의 작품에 대해 전 인류의 마음에 같은 정서적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인류는 서로 치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 2. 시조의 전도체와 마음의 메인보드
Table 2. Sijo Conductor and Mainboard of psyc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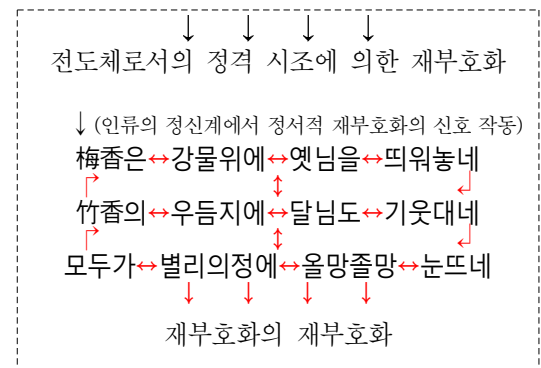
이러한 <표 2>와 같은 경로를 거쳐 인체의 뉴런의 집합체에서 또 다른 시조를 곧바로 형성하기도 한다. 이는 역시 각인의 인체에는 서로 공유하는 정서적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작품은 이영대의 시조를 접하고 새로운 “부호화” [4] [6]를 이루어 마음의 메인보드에 재빨리 각인되어 재창작될 수 있는 새로운 신호체계의 시조이다. 시조를 SNS에 올리면 타인들이 곧바로 그 시조에 대한 정서를 묘사하는 새로운 댓글시조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다.

표 3. 시조의 재부호화
Table 3. Re-codification of Sijo



이 <표 3>에서 다시 재부호화를 이루면 다음 <표 4>와 같이 재창작되어 새로운 신호 체계로 또 다시 곧바로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조는 처음에 던진 시조를 이어받아 재빨리 무한정으로 깊어지고 내밀해지거나 다양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원작의 정서가 공유된 각인의 마음에서 서로 다른 문학치료의 단계를 이어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표 4. 시조의 재부호화의 재부호화
Table 4. Re-codification of Sijo Re-codification



이 <표 4>의 시조는 다시 또 “재부호화의 재부호화”의 과정을 재빨리 거쳐 새로운 유형의 정서적 환경을 스크랩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부호화 되거나 재부호화 되거나 또는 “재부호화의 재부호화”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작품이 원작보다 뛰어나다거나 더 깊어지지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시조의 정서적 코드는 다 같지만 각 작가들의 인지시스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서적 코드는 공유하지만 인지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은 인류는 다 같은 영장류에 속하지만 또 다 다른 지문을 갖고 태어난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영대의 시조의 부호화와 재부호화를 이룬 시조들은 모두 “梅香”, “竹香”, “墨香”의 소스들을 작품의 내면에 정신적 의식의 인식 체계로 삼고 있다. “梅香”, “竹香”은 혼합된 신호의 정서적 의식의 산물로써 존재하고 “墨香”은 완전히 용해되어 작품의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내용의 흐름 속에 “梅香”과 “竹香”, 그리고 또 다른 어휘들의 행간에 존재하게 된다. 만약에 이영대의 이러한 시조의 공감대적 소스들을 배제한다면 부호화와 재부호화 된 시조들은 원작 시조의 미적 가치와 작가가 의도한 원론적인 문학치료 목적의 신호적 체계를 충만하게 지니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梅香”, “竹香”, “墨香” 등이 이영대가 피한 문학치료의 시조적 정서 지대의 클러스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조의 정격 클러스터가 인류의 마음에서 발효되어 새로운 형태의 시조를 조직하게 된다. 이때 “梅香”, “竹香”, “墨香” 등의 원 재료는 새로운 시조의 뼈대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시조는 인류의 공동체가 공감하기 위해서 첫수를 뜨는 시인의 영감과 긍정적인 문학치료를 향한 신호 체계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시인의 존재의 필요성을 극하게 역설하기도 하는 것이다. 문학치료의 극한 공감대의 정서 지대를 의도적으로 도식화한 이영대의 시조는 문학치료 신호 체계의 마중물로써 대중들과 문학의 즐거움을 누리며 21만 블로거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즐거움이라는 감동들이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문학의 효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써 시조의 화두를 던지고 서로 주고받는 시인들의 문학적 존재의 역학적 반응 뒤에 남아 인간의 해마에 치료의 기억으로 오랫동안 각인되는 것이다.

IV. 논의 및 사례와 예측

인간의 모든 감정 및 정서는 전기적 신호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격 시조의 문장뉴런(표 5)에 의한 전도체의 전기적 신호가 인간의喜怒哀樂을 인체의 마음의 메인보드 상에서 터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의 메인보드는 인체의 뇌신경 시스템으로 시냅스되는 모든 신체 부위의 뉴런의 총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운채는 “시가 정신의 영역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음” [3]을 말한다. 그런데 정운채는 육체의 영역에서는 시가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운채는 “시는 우리의 육체와 별로 관련이 없” [3]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정운채의 잘못이다. 시가 육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것은 시가 육체의 뉴런의 신호 체계를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는(문학은) 육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시가 혹은 시적 텍스트가 정신의 영역에서 병을 치료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영대는 자신의 시집에서 고백하기를 잠들었다가 “베레미아”라는 “천사의 금관악기 같은 소리”를 듣고서 놀라 잠을 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자신의 정신적인 결격 장애가 없어졌다고 간증하고 있다. “베레미아”는 이영대의 시적 텍스트이다. 이영대는 자신의 병이 치료된 후 “베레미아”가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과 교회 다니던 교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영대가 수많은 글들 중에서 “베레미아”의 뜻을 찾는 글들이 보였다. 실제로 이영대는 이 “베레미아”라는 소리를 듣고 놀라 잠을 깨며 인체의 심각한 병을 치료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이 “베레미아”는 이영대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천사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 “베레미아”는 게임 중에서 드러나는 몬스터의 이름이었다. 이 몬스터의 뜻은 괴물 혹은 용의 뜻이었다. 이영대는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자신에게 들렸던 용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정상인이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영대는 이 “베레미아”라는 괴물의 기표에 의해 현실적 인식에 장애를 가지게 되어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심연에 내재한 악한 자아와 선한 자아와의 대립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결국 선한 자아의 승리로 끝났다. 이는 기독교적 신비한 체험이 그를 “반복강박(compulsion to

repeat) ” [2]에서 이끌어 낸 결과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까지 아직도 이영대는 이 “베레미아”의 뜻을 모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영대의 신성한 기운의 느낌과 체험은 바로 문학치료의 효과라고 판단한다. 이영대에게는 “베레미아”라는 시조의 음보 하나에 의해 문학치료가 수행되었다. “베레미아”라는 소리가 이영대에게 들리고 그 즉시 용의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고 정상인이 되었다고 이영대가 말하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풀이하면 박찬부가 말하는 “주인기표의 변증법화” [2]의 한 현상에 의한 것으로써 정신계의 어떤 자극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정신세계가 어떤 소리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갑자기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베레미아”라는 소리가 나타내는 텍스트의 전기적 신호 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영대는 이 텍스트에 의해 정신계에 비정상적으로 응축되어 있던 마음의 메인보드가 작동되어 한 순간에 응축이 풀리고 그 회로가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영대는 그의 시집에서 고백하듯 “베레미아”라는 뜻을 몰랐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베레미아”라는 소리가 어떻게 이영대의 뇌구조를 치료의 현장으로 움직였으며 어떻게 또 정상적으로 돌려놓았는지를 생각하며 의아해 할 것이다. 그것은 본 연구자의 다른 논문에서 그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텍스트의 전이적 특성은 자연계와 인체에 무한으로 수시로 접촉되고 있다. 그 전이적 신호들은 인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 접촉되어 인체에 각인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인체의 DNA에 인류의 역사가 인체의 인지와 상관없이 프로그래밍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그마프레스에서 발행한 “뇌와 행동의 기초”에서 밝히듯이 뉴런들은 우리의 인체에서 “기억을 저장하고 우리의 사고와 정서를 만든다” [6]는 것이다. 이 뉴런들의 행동들을 우리의 뇌구조는 스스로 다 인지하지 않는다.

이영대는 “베레미아”라는 용어의 뜻을 몰랐지만 이영대의 인체에 형성되어 있는 뉴런 시스템에는 인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영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기적 신호로 “베레미아”에 관한 신호적 장치가 저장되었다가 어떤 사고나 계기로 인하여 특정하게 활성화 되었고 용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외국 사람이 폭행을 당해 갑자기

뇌의 어떤 신경이 활성화 되어 수학의 천재가 되었다는 사실과도 같은 경우이다. 인체의 뉴런 시스템은 어떤 계기로 인하여 특정한 뉴런이 활성화 되면 새로운 인식 체계가 성립된다. 이것이 그 인체에 불행이 될지 행복이 될지 모르지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이라면 문학적 텍스트로서 재발견되는 그것은 문학치료의 결과인 것이다.

이영대는 용의 울음소리를 인식하는 뇌신경 구조가 활성화 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사고 당시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뇌신경 구조가 활성화 되었다면 비둘기의 소리가 항상 귀에 들렸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누전으로 인하여 그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써 이영대의 뇌신경 구조는 항상 사고에 의한 후유증으로 용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신경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신경이 계속하여 전기적 신호를 보내며 마음의 메인보드를 흥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영대의 정신계에 있는 마음의 메인보드는 “베레미아”라는 이 하나의 어휘로 인하여 재충격을 받고 그 비정상적인 응집이 풀리게 된 것이다. 즉, 새로운 전기 신호로써 그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전기 신호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마음의 메인보드에서 소리에 의한 전기적 신호의 “부호화” [4] [6]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그의 “놀라 잠을 깨었다”는 진술에서 알 수 있다. 놀랐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적 충격이 이영대의 뇌신경에 접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대 자신도 모르는 “베레미아”라는 텍스트의 전기 신호 특히 음성적 전기 신호가 이영대의 내부에 숨어있는 “베레미아”의 실체를 충격하여 뇌신경의 재부호화(참고 [4] [6])를 실행해 쫓아내 버린 것이다. 이 “베레미아”라는 한 음보의 정격 시조의 전기 신호가 감지된 이후 이영대는 정격 시조를 대산처럼 많은 비유와 노래와 이야기들로 쏟아내고 있다. 이것 또한 이영대 자신으로서 인체에서 요구하는 문학치료의 상시적인 과정에 속한다.

인체와 텍스트의 관계성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문들 간의 관계에서 추출 가능한 키워드들이 사용되었다. 다가올 융합된 학문의 미래에는 이러한 연구가 본 연구보다 더한 방법으로 극적인 연구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알파고와 인간이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것도 이러한 융합된 학문의 결과로써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영대는 모르는 게임 네임인 “베레미아” 가 몬스터(괴물, 용)의 이름이다. 이러한 몬스터의 이름을 충격함으로써 치료가 된 이영대의 사례처럼 어쩌면 게임이 인간을 치료하는 사례가 융합된 학문의 시대에는 출현 가능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가올 엄청난 발전이 예기 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각 학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학문이 한 자리에 모여 긍정적으로 의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학문을 가속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미래는 자신의 학문만을 고집하는 편협한 우리에게 냉정한 현실이 될 것이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모든 학문이 협력하는 우리에게 따뜻하고 안정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주의 원리가 한 학문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학문의 총체적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인류의 복지와 행복한 미래는 모든 융합된 학문이 한 길로 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면 문학적 신호 시스템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인체의 정신계의 신호들을 컨트롤 하여 비정상적 인격의 신호 시스템을 재부호화 하여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인체의 뇌신경 시스템을 복사하여 문학적 전도체로 시스템화 한 다음에 정신적 결격자들의 뇌신경과 시냅스 시켜 비정상적 신호를 발출하는 뉴런들을 정상적인 신호를 산출하는 뉴런들로 “부호화” [4] [6] 시켜 인체의 정신계를 긍정적이며 창조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든 시도에는 정격 시조가 의미하는 인체라는 정격의 시스템을 구현해 낼 수 있는 표본 모델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꼭 정격 시조는 아니더라도 정격 시조적인 문학적 치료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또한 모든 시도에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정서와 문장이라는 정격의 시스템이 존재해야 인체의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정서로 이루어진 문장들만이, 인체 내에서 전기적 신호 체계의 작동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그 문장의 뉴런들만이, 인류의 감정 및 인지 시스템을 부작용 없이 창조적으로 풍요롭게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우리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시대는 바로 모든 학문의 융합의 시대이다. 모든 학문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도출할 수 없지만 서로 융합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선상에 있다.

정격 시조의 텍스트는 특히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전도체”로서의 기능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틀이 정격이므로 인식세계의 좌로나 우로나 비뚤어지거나 가감되는 정서적 텍스트의 불완전성이 거의 배제되었고 인체가 정격의 시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항상 정확하게 들어맞게 된다는 것이었다. 만약에 자유시라면 벌써 인체는 이 문학적 행간의 흐름을 잡을 때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여 낸 정격 시조의 전도체로서의 기능에 대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결정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첫째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정격 시조가 산출하는 신호 체계는 인체의 뉴런 시스템과 잘 융합하는 성질이 있어 인체의 뉴런들을 활발히 발화시켜 새로운 단계로의 치료적 부호화를 신속히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 인체에서 발출된 정격 시조의 텍스트는 마음의 메인보드를 작동시키는 전도체로서의 기능을 재빨리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도체로서의 정격 시조는 원작에 의해 다른 인체의 마음의 메인보드 상에서 부호화와 재부호화를 수행시키는 결과물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정격 시조의 신호 체계를 조직하고 발산하게 된다. 이것이 인류의 공동체에 공동적으로 치료적 작동을 야기하게 된다.

넷째 정격 시조의 전도체와 같은 성격의 시스템이 더 한층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인지적으로 개발되어 인체의 정신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도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References

- [1] Park In-Kwa. *The Form and Application of Sijo*. (Hankukmundan, Seoul: 2013). 33. 박인과. 『時調의 型式과 活用』(韓國文壇, 서울: 2013). 33(유기체).
- [2] Park Chanbu. *Eros and Death*. (Seoul: Seoul National Unuversity Press, 2013). 44. 박찬부. 『에로스 와 죽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44(반복강박).
- [3] Jeong Woonchae. *Theoretical Foundation of Literature Therapy*. (Seoul: Literature and Therapy Publishers, 2007). 131-132.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서울: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7). 131(육체)-132(정신의 영역).
- [4] Baars Bernard J and Gage Nicole M. Bonggyun Kang, trans.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1E*. (Paju: Kyobo Books, 2010). 183-184 Baars Bernard J. Gage Nicole M.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1E*. 강봉균 역. 『인지, 뇌, 의식 1판』(파주: 교보문고, 2010). 183(신경코드로 변형)-184(부호화, 재부호화).
- [5] Cooper Geoffrey M and Hausman Robert E. Jinseok Jeon et al, trans.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Seoul: World Science, 2011). 11. Cooper Geoffrey M. Hausman Robert E.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전진석 외 14인 공역. 『세포학』(서울: 월드사이언스, 2011). 11(DNA 복제).
- [6] Bryan Kolb, Wishaw Q lan(2012).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Hyun-taek Kim, Myung-seon Kim, Jaejin Kim co-trans. 78, 312. Seoul: Sigma Press. Bryan Kolb, Wishaw Q lan(2012).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김현택, 김명선, 김재진 공역. 『뇌와 행동의 기초』(서울: 시그마프레스). 78(정서를 만들, 가소성, 경험과 기억의 부호화), 312(활동전위로 부호화, 증감량은 자극 강도를 부호화).

표 5. 문장뉴런의 구조2)

Table 5.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Neuron

Sentence-Neuron		문장뉴런의 구조						Neuron-Sentence	
		OR 뉴런문장의 구조							
수상돌기 (정보수집) <small>수식어+주어(제언+주격조사)</small>		세포체 (정보처리) <small>주어부+서술부</small>				축색	종말단추	수상돌기	
→ 그러므로	나비인	나는	달콤한 다정한 원형인	당신을	춤추며 온전히 영원히	사랑해요	→ 나는 → 당신을 → 사랑해요 →	→ → →	
→ 그래서	고독한								
→ 그리고	사각형인								
수 식 어	수 식 어	주 어	수 식 어	목 적 어	수 식 어	서 술 어	이 동	시냅스 (종말단추+수상돌기) 앞문장과뒷문장사이	
주어부 (主語部, 수상돌기+세포체)			서술부 (敘述部, 세포체+축색+종말단추)				정보전달		
수식어부 (修飾語部, 수상돌기+세포체+축색+종말단추의 전체에 입체적으로 걸침)									
수식어부→조사, 접속사, 보어, 관형사, 형용사, 부사, 접두사, 접미사, 꾸밈말 등 이 구조에서는 제언과 어간 (동사, 형용사 등) 외의 모든 것을 수식어(꾸밈말)로 본다.									
<p>문장은 언어이고 언어는 문장이다. 문장은 의식과 무의식의 뉴런이다. 문장(의미나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었거나 표현되거나 표현될, 그리고 상징되었거나 상징되거나 상징될 모든 것)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와 내부의 정보를 받은 몸(body)의 뉴런은 문장에 대한 생체적 거울 역할을 하는데, 문장을 생체적으로 입력하여 수시로 새로운 (생체적) 뉴런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몸(body)의 뉴런에서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생성된 새로운 문장이 외부의(몸 밖의) 문장으로 투사된다. 이 살아있는 생체적 문장은 외부에서(몸 밖에서) 문자로 만들어져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은 다시 몸(body)의 수상돌기로 투사된다. 문장(sentence)은 뉴런(neuron)이며 가시적이면서 불가시적인, 그리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사랑하고 창조하며 우리 몸(body)과 우주와 소통하는 우리 몸(body)의 생명체이다. 거울뉴런(mirror-neuron)으로서 사람의 몸에 접근하는 문학치료, 혹은 문학치료학적 발상은 소통과 발전의 모델(BPS-Modell)을 지향한다.</p>									

2) 박인파, “시조를 통한 문학치료 연구”, 『JCCT』 <1권1호>(서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5), 59. 이러한 문장뉴런이 인체의 뉴런과 함께 시냅스 되어 문학치료 기전을 형성하는데, 문장뉴런의 수상돌기는 인체 뉴런의 수상돌기에, 문장뉴런의 세포체는 인체 뉴런의 세포체에, 문장뉴런의 축색과 종말단추는 인체 뉴런의 축색과 종말 단추에 대입되어 서로 스며든다. 이때 문학치료의 기전이 시작된다. 이러한 문장뉴런의 법칙은 라캉이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 되어있다” 라고 선언한 표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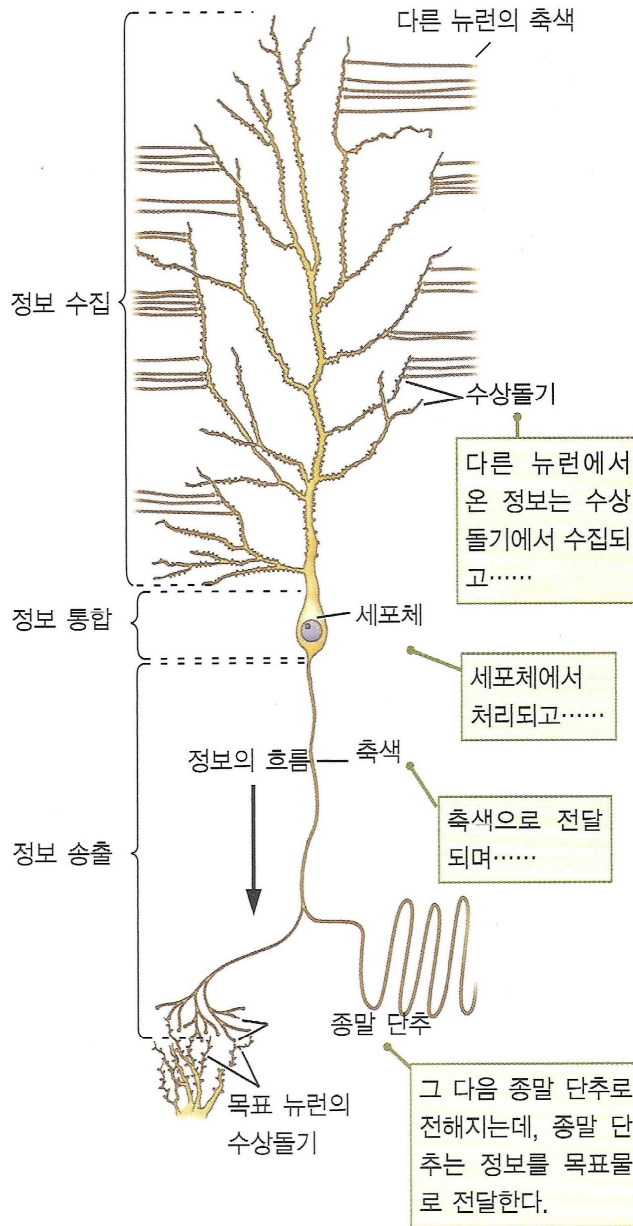


그림 1. 뉴런의 구조³⁾
 Fig 1. The Structure of the Neuron

³⁾ Bryan Kolb, Lan Q. Whishaw,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김현택, 김명선, 김재진 공역, 『뇌와 행동의 기초』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78.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인체의 뉴런의 기능은 마치 문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문장들이 인체에 스며들어 인체의 뉴런의 각 부위에 작용을 하는데 마치 문장이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하며 문장과 뉴런 사이에서 서로 새로운 신호 체계로의 부호화 및 재부호화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인체의 뉴런의 법칙은 라캉이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 되어있다” 라고 선언한 표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